

가래

부활 제2주일

기초 자료

하느님의 자비와 우리의 부활

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

## 하느님의 자비 주일

✓ 성녀 파우스티나: 환시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을 성화로 그림

"예수님,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." - 성화 속 기도문

=> 부활 제2주일은 예수님의 파스카 사건이 하느님의 자비로 이루어진 일임을 기억하며, 지금도 당신 자비로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을 기억하는 날

## 부활 8부 축제

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 받아 중요한 축일을 팔일 간 지냄

"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." (요한 20,26)

=> 교회는 해마다 부활 제2주일(부활하신 뒤 여덟째 되는 날)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나타나신 내용의 복음을 봉독한다.



## 예수 부활에 대한 요한의 증언

"...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." (요한 20,20)

✓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활한 몸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몸으로  
더 이상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몸

=> 우리가 부활하게 될 육신도 지금과 다른 완전히 변화된 몸임을  
알게 된다.

## 성령과 하나님의 자비

성령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언할 수 없다.

=>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,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영

죄를 용서하고, 자비를 베풀고,  
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,  
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임무이다.

## 상등이라 불리는 토마스

"저의 주님, 저의 하느님!" (요한 20,28)

신약성경 전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외치는

첫 신앙 고백

=> 우리도 토마스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부활을 체험해야 하고,  
그렇게 체험하는 이들만이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.

##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

부활에 대한 증언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이들이기에  
보고 믿는 이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이들이다.

보았다 하더라도...

성령의 이끄심이 없는 이들은 결코 믿음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,  
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본 것도 잊어버리게 된다.



## 초대 교회의 발전

"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..." (사도 2,43)

기적만을 보고 믿게 된 이들은 결국 세상의 삶이 불안해지면  
주님을 버리게 될 것

=> 하지만,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도들은 박해를 기꺼이 참아냈고,  
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였다.

가난한 이웃을 돕는 삶,  
공동의 집(지구)이 우리 모두의 집이라는 개념,  
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라는 믿음  
=> 초대 교회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본받고자 노력하는 모습

##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생생한 희망

"이 상속 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."  
(1베드 1,4)

이 믿음과 희망으로

우리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갖가지 시련을 이겨내며,  
보고 믿는 이들보다 더 큰 영예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.